

강화해왔습니다. 양국 교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도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한층 돈독히 해 앞으로 더 멋진 50년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일본 경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차세대가 밝은 미래 관계를 계승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

국가 간 갈등, 피할 수 있다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이 토론의 장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 기쁘고 특히 오랜 친구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도요노 대통령 재임기에 저도 호주 총리였고 우리는 매우 가깝게 지내며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종교, 문화, 민족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 두 나라 간 공동 목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2년 발리 폭탄테러 당시 호주 국민들을 살해한 범인을 붙잡기 위해 치안부대를 동원해 협력했던 사실을 저는 호주를 대표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연설 중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들으며 세계 지정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정치적 사건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소련 공산주의 붕괴,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입니다. 동유럽 전반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소련과 대부분 소비에트 위성국가에서 마르크스-엔겔스 철학을 벗어나,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옹호하며 수십 년간 성과 없는 헛된 노력 속에 주도권 경쟁을 했던 허위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실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킨 사건이자 대변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자 세계사적 전환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 성장 강국으로 부상한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경제의 미래가 아시아에 달려 있음은 자명합니다. 제 나라 호주도 멀게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여정에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1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호주·일본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60년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면서 호주 경제는 괄목할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몇 해 그리고 2015년 호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호주와 아시아 간 무

역 관계 성장은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화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1950년대 이후 이 놀라운 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과 증산증이 급격히 팽창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그간 한국 경제 체제의 주목할 변화를 돌아보면 세계화와 경쟁자본주의 확산의 엄청난 수혜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규모와 폭을 고려했을 때 경제체제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을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팽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세계사적 대전환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팽창을 두말할 것 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중 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경제와 군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지닌 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미국처럼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역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19세기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미국과 독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 연설의 핵심 논지는, 강조하건대 미중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길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날이 커지는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과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호주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지난 30년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시기였으며 이는 바로 세계화와 경쟁자본주의의 수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갈등 회피를 다가올 미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끝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을 대신하여, 이 아름다운 섬 제주의 원희룡 도지사님과 한국 국민들이 베풀어주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중견국, 국제사회 역할 커

조 클라크 전 캐나다 총리



한국을 다시 방문해 이렇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주포럼이 마련한 진취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가 내부지향적 자세를 취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정신은 밖으로 뻗어가고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관련국들이 새로 부상하는 과제에 직면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 어느 지역보다 강성해질 수 있도록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 그 노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일찍이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실질적으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6·25전쟁 때 2만5000명이 넘는 캐나다 병력이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5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에 굳건한 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7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많은 성취를 이루며 양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랑스러운 이민국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귀화한 캐나다인 중 상당수, 지난해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이어서 캐나다인의 관점이 하루가 다르게 '아시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관계에서 괄목할 점은 올해 1월 1일 발효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FTA 협정을 체결·발효한 첫 아태 지역 국가입니다. FTA를 통해 자유무역뿐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다자 협정을 포함한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양자 그리고 다자 협정은 아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아태 지역 내 이니셔티브는 상대적으로 흔치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에서 이뤄진 협력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태 지역 내